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702-4301

山林病虫害 防除에 山林行政力 集注

8 월 말까지 총력방제키로

사업비 60억 2천 6백 만원에 20 만 5 천 ha

산림청은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올림픽 경기장 성화봉송로 등 경관 유지가 긴요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피해를 집중 방제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방제키로 하였다.

산림청은 산불이 온 국민의 협조와 경각심의 고조로 한 고비를 넘겼으므로 산림자원조성에 저해와 타격을 주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전 행정력을 전환키로 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총력 방제키로 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보면 88년 5월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병해충 집중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병해충 예보제를 실시하여, 발생 즉시 방제에 임하도록 하며,

집중방제할 주요지역은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올림픽 경기장과 성화봉송로 주변,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 철도변 주요 관광지 등 사적지가 대상이 된다.

또 경관저해 해충을 집중 방제대상 해충으로 설정, 집중방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대상해충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황철나무알락하늘소 등이며,

그중 지역별 솔잎혹파리 집중 방제계획을 보면, 독립기념관 주변, 대청댐, 충주댐, 단양신시가지, 봉화, 울진 송이생산지역, 울진 불영계곡, 설악산 지구가 주 대상이 된다.

또 산림청은 이 해충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국의 산림관계공무원은 물론, 산림조합, 농촌지도소, 산림계장 리동장, 지도자, 농림업계 고등학교 교사, 산주등을 대상으로 각종 병해충 표본, 생태, 방제상황판 등을 전시하면서 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山林이 울창하여 간다

- 나무成長에 加速붙어 -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불리워 온것은 산에 樹木이 울창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帝의 수탈과 8.15 解放, 6.25 事變 등 급격한 社會的 變動으로 因해한 때는 「민둥산의 나라」란 오명을 들어야 했던 우리나라지만 이제 어디를 가나 山林이 울창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금수강산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게됐다.

우리나라의 立木蓄積은 古代로 가면 울창하던 고사들이 많이 나오나 記錄이 없어 正確히 알 수는 없으나 울창했던 것은 事實이었다.

現在 記錄으로 남아 있는 것은 1910年代 (7億 m^3) ha 當 約 46 m^3 (資料: 韓國林政史 p135) 으로 山林先進國으로서 遜色이 없었으나 日帝 36年間の 수탈 (總 蓄積 7億 m^3 에서 5億 m^3 수탈) 과 8.15 解放 6.25 動亂 등 社會的 混亂期의 무절제한 濫代과 燃料採取 등으로 山林荒廢는 極에 達해 1951年末 ha 當 4.76 m^3 (3千百万 m^3) 으로 대부분의 山野는 민둥산 투성이였으며, 여름철에 비가 한번오면 엄청난 흙과 모래가 農耕地를 埋沒시키고 개천과 강바닥은 農耕地보다 높이 올라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그후 政府에선 「절대 綠化」란 키치프레이스 아래 山村에선 國土保存事業인 砂防事業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政府의 組織的인 計劃아래 第1次 治山綠化 10年 計劃이 시작한 1972年에 荒廢林地 一濟調查結果 (砂防事業 해야 할것) 全國에 79,727 ha 로 判明되어 막대한 豫算과 人力을 投入, 復舊事業을 꾸준히 推進해온 結果 第1次 治山綠化期間 ('73 ~ '78) 에 41,789 ha 를 完了하고 第2次 治山綠化計劃 第9次年度인 올해까지 36,335 ha 를 完了했으며 殘量 1,603 ha 는 第2次 治山綠化計劃이 마무리되는 來年 ('88年) 까지 完了하게 된다.

이처럼 荒廢山地가 없어지면서 一部에선 산에 쓸모없는 나무를 造林해서 울창한 것처럼 보이나 산에 가보면 쓸 나무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荒廢山地를 被覆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 임층을 造成케 하여 土砂流出 防止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環境造成이 급선무이므로 이 環境에 맞는 나무로 아카시나무,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을 選定 植栽하게 되었으며, 이들 樹種은 뿌리에 균류 박테리아가 寄生하여 空氣中の 유기질소를 고정시켜 나무가 자라는데 必要한 질소를 供給하여 주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도 비교적 良好한 生長이 될 뿐 아니라 땅을 肥沃하게 한다하여 “肥料木”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들 나무는 萌芽力이 旺盛하기 때문에 每年 베고나면 다시 萌芽가 旺盛하게 돌아나서 60 ~ 70年代 林産燃料를 대부분 이들 나무에 依存했으며 지금처럼 林地를 肥沃하게 하는데 크게 공헌한 나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처럼 政府에서는 山林綠化를 위하여 이들 나무를 荒廢 山地에 심어 綠化를 이룩하고 이에 의하여 肥沃하게 된 山地에 樹種更新으로 經濟樹를 심어 山地의 資源化에 行政力을 集中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國民들이 山林에 對한 인식도 높아져 政府政策에 대한 적극적인 呼應이 뒤따른 結果, 山地의 被覆率 60年代 58%이었던 것이 86年 現在 96%로 올폐되었고 낙엽층은 '72年엔 蓄積이 없었던 것이 '87年 現在 0.5~5cm의 두께로 쌓여 흙속의 유기량이 크게 늘어나 토양의 부식토, 유기질 등이 平均水準 B층에서 유기질층이 2.5cm 두께인 最下層인 A층으로 改善되는 등 놀라운 정도로 林地環境의 變化를 갖어왔다.

그 結果 이제 가까운 野山에 올라가 나무의 크는 部分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쉽게 느낄 수 있을 程度다.

山林廳 林業試驗場 研究팀이 全國的으로 나무 成長速度를 調査해 본 結果 加速이 붙어 놀랍도록 빨라지고 있음을 每年 生長速度 표본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山林蓄積도 每年 增加 (70年代 4.4%) 하고 있어 우리의 모든 山野가 資源化될 날이 머지 않았으며, 앞으로 2000年代엔 山地先進國에 도달할 수 있게 될 展望이다.

- 년도별 임목축적 현황 -

년 도 별	산림면적 (헥타)	총 축적 (㎥)	헥타당 (㎥) 축적
51년말	6,468,863	30,820,850	4.76
55 "	6,726,382	57,888,767	8.60
60 "	6,756,726	63,995,014	9.47
70 "	6,611,474	68,772,956	10.40
75 "	6,635,352	105,382,224	15.88
80 "	6,567,772	145,694,050	22.18
85 "	6,531,102	179,380,859	27.46
86 "	6,523,966	192,931,012	29.57

* 산림 선진국 헥타당 (ha) 축적

- 미국 : 78 ㎥
- 일본 : 113 ㎥
- 서독 : 150 ㎥
- 뉴질랜드 : 33 ㎥

- 나무 성장 표본조사 결과 -

수종	수령 (년)	높이 (m)	생 장 길 이 (cm)								위 치
			80	81	82	83	84	85	86	87	
소나무	15	5.7	42.6	41.3	44.7	55.4	57.1	60.7	60.1	61	금곡
잣나무	12	4.4	25.9	40.3	51.6	63.1	63.0	66.0	62.0	65	성남
	15	5.2	38.9	39.3	47.2	49.8	50.6	52.8	55.0	55	서울
리기다	13	4.4	20.8	39.8	38.4	58.3	59.7	61.0	62.7	62	광주